제299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황인구 의원 등 31명 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인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인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102주년 3.1운동 기념식이 있었던 지난 1일,
양곤을 비롯한 미얀마 전역에서 군경의 무력 사용으로
최소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이유로 2월 1일에 기해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거리에 나선 미얀마 국민들에게
군경이 무차별한 실탄을 사용한 것입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국제사회가 유혈진압에 대한 규탄과 우려를 표현하고,
우리 정부 역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과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진행된 NSC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발표를 통해
무력사용 중단과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했음에도
군경에 의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는 4.19혁명과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

역사를 통해 증명했던 ‘민주주의를 위한 서울시민의 의지’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보여주었던 ‘광주정신’에 기반을 두고
민의를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지방의원으로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거리에 나선 미얀마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자치분권 2.0 시대’의 걸맞은 지방의회 구현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은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통해
우리 헌법이 규정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미얀마와 진정한 동반자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얀마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경험을 공유하는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입니다.
지금 그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도움과 연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세계인권선언」 제20조와 제21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왔고,
무력으로 이를 저지하는 군부와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결의안은 국민의 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는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쿠데타로 인해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 원대 복귀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의 입법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